



## 화순 농촌지도자회 연말 총회

코로나19 속 간소하게 마무리...우수 회원·우수 단체 시상식만 진행

화순군은 15일 농업기술센터와 동면 과수포장에서 한국농촌지도자화순군연합회(이하 화순 농촌지도자회) 연말 총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총회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다. 우수 회원과 우수 단체 시상식만 진행됐다.

시상식 후 동면 과수포장에서 읍·면회 임원을 상대로 겨울철 과수관리 교육을 시차별로 나눠 진행하고 회의 안건은 서면으로 처리했다.

백아면 임연주, 동북면 김연호, 동면 맹수기 씨가 우수 회원으로 선정돼 군수 표창을 받았다. 동면회, 도곡면회, 이양면회, 춘양면회가 우수 단체로 선정돼 한국농촌지도자화순군연합회장상을 받았다.

우수 단체상은 활동이 우수한 읍·

면 농촌지도자회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화순군연합회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상제이다.

농촌 환경 정비를 위한 폐농약병 수거 활동, 회원 모집, 사랑의 쌀 후원 등 한 해 동안 회원 단합과 활동성과를 평가해 시상했다.

우수 단체상을 받은 동면회 맹수기 회장은 "농촌지도자회 회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농촌지도자회 슬로건인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을 실천한 회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화순 농촌지도자회는 지난 11월 농업인의 날에 사평면 김영례, 춘양면 김재복 회원을 '지역농업 발전 우수 농업인'으로 선정했다. 12월에는 정승채 화순 농촌지도자회 회장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상을, 권정주

회원이 전라남도지사상을 받았다.

농촌지도자화순군연합회에서 회원 665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승채 화순 농촌지도자회 회장은 "코로나19와 유례없는 긴 장마로 모두가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 농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농업 신기술 보급, PLS 실천 등 농업 현장 지도자로서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농업 선도 단체로서 역할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곡성군 "봉사활동만 했을 뿐인데 기부까지 일석이조"

자원봉사 1시간에 200원씩 기부해주는 정책 돋보여

곡성군이 자원봉사활동과 기부 문화를 장려하고자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란 민간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 봉사기관에 기부하는 것이다. 곡성군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자원봉사활동시간에 대한 환산금을 기부하고 있다.

환산금 기부에 참여하려면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곡성군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개인 자원봉사자의 경우 50시간

이상, 단체는 2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환산액은 시간당 200원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기부가 이뤄지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웃들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온 개인 봉사자 2명과 나눔 봉사회(회장 최혜경), 한국생활개선곡성군연합회(회장 김금자), 한국자유총연맹곡성군지부(회장 서호) 등 3개 단체가 환산금 기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들이 총 합산 2,751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친 결과 550,200원의 환산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됐다. 액수의 크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에 참여했던 결실이라는 점에서 지역에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곡성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돌봄과 연대의 정신을 통해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와 단체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내에서 자원봉사와 기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자원봉사센터(061-360-8321)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 나주시, 관내 일반음식점 27개소 입식테이블 전환 1억1500만원 지원

나주시는 관내 일반음식점(위생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전환 등 시설개선비 1억1천5백만원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사업의 특수시책사업 업소별 최대 500만원 지원 쾌적·안전한 이미지 구축

신도시 조성에 발맞춰 선진화된 음식문화 조성 및 고객 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로 6년째 추진되고 있다.

주방·객장·화장실 등 시설 일체 개선 및 입식테이블 전환 비용 등을 일

부 시비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1500만원을 투입, 총 27개소의 시설개선 자금 50%. 업소 당 최대 5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업소 대표자로 최근 1년 간 영업정지(과징금) 이상 행정처분이 없는 범위에서 나주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내 음식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돕고 쾌적하고 안전한 이미지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 '문화를 빛는 도시, 담빛예술마을'에서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존재와 무 사이-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맺음' 전시를 선보인다.

36명의 작가와 1명의 큐레이터를 초청해 9월부터 추진 중인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 '문화를 빛는 도시, 담빛예술마을'은 도시예술(공공공간) / 영상(온-오프 공간) / 시각예술(전시공간) / 커뮤니티(일상) 4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도시예술팀의 '창조적 파괴 : 생생으로 도시를 사유하기'는 담양읍 중앙로 및 해동문화예술촌 인근의 벽화 및 조형 작품으로 프로젝트의 서막을 알렸으며, 다가오는 26일 시각예술팀의 전시 오픈을 계기로 이 프로젝트의 매듭을 짓는다.

양초롱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술인 지원사업과 공공미술이라는 두 개의 거시적 목적에서 출발해 '공공미술'의 제약된 개념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소통'의 개념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의 내외 공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둘째주/셋째주 월요일과, 1월1일, 2월 12일(설날)은 휴관일이다. 담양=박종영기자

## 장성군, 전남 농산업 미래 이끈다

올해 농업분야 11건 수상 실적 기록

장성군이 전남 농산업의 발전과 부흥을 이끌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올해, 농업 관련 총 11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은 올해 농업, 복지 등 총 17개 분야의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 육성과 청년농업 영농정책 지원

등을 적극 이행해왔다. 이에 전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청년친화환경대상'(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주관)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귀농귀촌 관련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장성군은 전남도의 귀농산업총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이

라는 기록을 새롭게 썼다.

농업정책 관련 수상도 돋보인다. 올해 장성군은 전라남도의 농경영무 종합평가와 축산시책 종합평가, 농촌진흥사업평가에서 나란히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두석 군수는 "농업 관련 20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성군은 아열대작물 재배 등 미래 농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면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크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농업인 소득 향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창의적이고 품요로운 광주

#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

